

출장보고서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터키의 농업 및 농산물 경쟁력 파악을 위한 해외출장
2. 출장목적
 - 우리나라와 FTA 협상이 계획되어 있는 터키의 농업 및 농산물 경쟁력 파악
 - 전문가 면담 조사를 통한 교역 가능성 파악
 - 농가, 농촌, 도소매시장 현장조사
 - FTA 협상 시 우리나라의 민감 품목 파악, 협상전략 기초자료 수집
3. 출장지역: 터키 이스탄불, 부르사
4. 출장기간: 2009.11.18 ~ 24 (7일간)
5. 출 장 자

부서명(기관명)	직 급	성 명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최세균
	연구원	정대희

6. 출장일정

일시	내용
11. 18.(수)	서울 출발, 부르사 도착
11. 19.(목)	부르사 농과대학, 수출업자 조합 방문
11. 20.(금)	부르사 도매시장, 소매시장 방문 조사
11. 21.(토)	부르사 농가 방문(과수, 축산 농가)
11. 22.(일)	부르사 출발 - 이스탄불 도착(이동)
11. 23.(월)	이스탄불 도매시장, 소매시장 방문 조사 이스탄불 출발
11. 24.(화)	서울 도착

7.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자

소속기관	직 급	성 명	연 락 처
부르사 농대	학장	Dr. Muhittin Eyimaya	90-224-294-1588
수출업자 조합	회장	Mr. Salih Cali	
양잠협회	이사	손기욱	
터키양잠협회	이사	Caner Ilik	90-224-223-5410

II. 주요 출장 결과

1 부 : 터키의 개황

1. 개황

- 2008년 5월 터키와 IMF간 100억 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협약이 완료된 이후, 터키경제계 및 경제전문가들을 터키가 IMF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거나 동 협약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음.
 - 특히,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터키 역시 환율이 큰 폭으로 폭등하는 한편 터키 기업들 역시 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2008년 연말 터키 경상 수지 적자가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터키 재계 및 경제 전문가들은 터키 정부에 대하여 조속히 IMF와 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음.
 - 실제 터키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 및 섬유, 의류 산업 그리고 조선 산업은 터키 내수 시장침체에 2008년 말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EU,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 위축으로 인해 생산 및 수출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이러한 주요 산업의 생산 및 수출 감소는 대량 해고로 이어져 터키 내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터키 경제 및 사회에 큰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음.
- 터키의 EU가입은 2005년 10월,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목전에 둔 것처럼 보였으나,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 11월 발표된 EU 연차

보고서에서 EU가입을 위한 터키 정부의 개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평가에 따라 터키에 대한 35개 협상항목 중 무역, 금융 등 8개 항목에 대한 협상을 전면 보류하여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바 있음.

- 공식적인 이유는 언론 및 종교의 자유 보장, 여성인권 개선, 소수민족 및 노동조합 권익 보호 등이나, 실제로는 남사이프러스 영공 및 영해개방, 아르메니아 학살 문제 등과 관련하여 기존 EU가입국들과의 마찰이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음.

2. 경제정책

2.1 개요

- 터키 경제는 2006년과 2007년 실질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연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서 IMF 및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의 평가도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음.

- 특히, 터키 경제에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인플레이션도 4년 연속 한자릿수를 기록하고, 환율도 200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자신감을 찾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다만, 2006년 518억 달러, 2007년 628 억 달러에 이어 2008년에도 698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는 무역수지 적자는 터키 경제의 숙제로 남아 있음. 2008년 역시 국제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07년 동기 대비 무역수지 적자폭이 10% 이상 증가하기도 하는 등 무역수지 적자폭이 매년 크게 늘고 있음.

-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터키의 내수는 물론 경제성장을 이끌던 수출 역시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안정세를 보여 오던 환율 역시 급등세를 보이는 등 경제위기를 맞이하였음.

- 이에 따라 터키 정부는 2009년 들어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가전제품, 가구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와 같은 감세정책

과 함께 터키 내 생산 기업들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또한, 외환 확보를 위해 2008년 말 이후부터 IMF와 대기성 차관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당초 IMF와의 협상은 2009년 초 2~3년간 약 250억 불 규모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양측간의 견해 차이로 타결이 미뤄지고 있음.
- 현재 터키 기업인 및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고 있으나, 터키 정부는 터키 경제에 도움이 되는 협상타결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2.2 주요 산업 동향

○ 과거 터키의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은 섬유 의류 산업으로, 세계 4대 섬유 의류 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섬유 쿼터제 폐지로 인하여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산 섬유 의류 제품이 크게 성장하면서 터키의 주력 산업 구도가 변화하고 있음.

- 과거 터키의 주력 산업으로 인식되어 오던 섬유 의류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자동차 및 전자산업 등이 새롭게 터키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현 정부가 집권하면서 시작된 터키의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 산업 등이 터키의 주요 산업으로써의 입지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음.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은 터키 제1의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터키 경제를 견인하고 있음.
- 또한, 섬유 의류 산업 역시 최근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통해 중국 및 아시아산 제품과 차별화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등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터키 내수 시장 침체 및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주요 수출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자동차, 섬유 의류, 전자산업 등 주요 산업들의 생산 및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09년 들어 터키 정부가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및 가전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소비가 다소 살아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섬유 및 의류 산업의 경우, 과거 대량 주문을 하던 EU 시장에서 최근 경제악화로 소규모 주문을 통해 물류 창고비를 절감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2.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터키는 1980년대부터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무역 자유화와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법인세 감면, 세금 환급, 수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책을 시행 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WTO 및 여타 국제 규율에 상응하도록 수출입 제도를 정비, 시행하고 있음.
- 2003년에는 수입 제도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WTO 및 EU 관련 규정과 합치되는 수입제도시행령(The Import Regime Decree)을 발표한 바 있음.
- 특히 터키는 1996년 EU와 관세 동맹(Customs Union)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수출입 제도 전반을 EU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기 시작하였으며, 중·동구 유럽 및 이스라엘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은 EU의 공동 무역 정책과 같은 기초를 유지하고자 하는 터키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주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터키는 EFTA(1992), 이스라엘(1997), 마케도니아(2000), 크로아티아(200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2003), 모로코(2004), 팔레스타인(2005), 시리아(2004), 튀니지(2005) 이집트(2005), 알바니아(2006)와 관세동맹을 체결하였으며 요르단, 레바논, 파로 군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멕시코 등과는 현재 협상 중에 있음.
- 걸프 협력 위원회(Gulf Cooperation council)와는 협상을 이제 시작하였고 알제리, 칠레,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남아프리카 관세 동맹,

MERCOSUR와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추진될 예정임.

- 또한, 우리 나라와 EU간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터키 정부에서는 2008년 초부터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을 원해오고 있음.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2009년 상반기 민간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2009년 하반기부터 양국간 본격적인 FTA 협상을 실시할 예정에 있음.

3. 터키의 교역 현황

- 터키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수출이며,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섬유류의 수출 호조로 지난 5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터키는 부품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부품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제품 수출 증가에 따라 수입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폭은 매년 더욱 커지고 있어 터키 경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2008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어 수출과 수입, 무역수지 적자 모두 각각 23%, 18%, 11%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08년 3사분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수출 및 수입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여오고 있음.
 - 특히, 2009년 들어서는 금융위기의 여파가 본격화되어 수출의 경우 -30% 수입의 경우 -40% 등 수출입 모두 '08년 대비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였음. 이는 터키의 주요 수출시장인 EU 및 미국 등 시장이 크게 침체함과 동시에 터키내수 역시 위축되면서 수출, 생산, 수입 모두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표. 터키의 무역수지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1~7 월
수출 (증감률)	73,476 (15.8)	85,535 (16.1)	107,272 (25.3)	132,003 (23.1)	56,770 (-30.2)
수입 (증감률)	116,774 (19.0)	139,576 (17.7)	170,063 (21.8)	201,823 (18.7)	74,769 (-40.9)
무역수지 (증감률)	-43,298 (24.9)	-54,041 (20.5)	-62,791 (21.1)	-69,820 (11.2)	-17,999 (-60.1)

자료 : 터키통계청(www.tuik.gov.tr)

표. 터키의 주요 수출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08년	2009. 1~7월
1	독일	12,952	5,361
2	프랑스	6,618	3,390
3	영국	8,159	3,017
4	이태리	7,819	3,204
5	이라크	3,917	2,954
6	미국	4,300	1,789
7	UAE	7,975	1,741
8	스페인	4,047	1,449
9	이집트	1,426	1,778
10	러시아	6,483	1,679

주: 순위는 2009년 기준

자료: 대외 무역청(www.dtm.gov.tr)

표. 터키의 주요 수입국

순위	국가명	2008년	2009.1~7월
1	러시아	31,364	10,381
2	독일	18,687	7,391
3	중국	15,658	6,542
4	이태리	11,012	4,024
5	미국	11,976	4,713
6	프랑스	9,022	3,763
7	스페인	4,548	2,006
8	이란	8,200	1,814
9	영국	5,324	1,798
10	스위스	5,588	962

주: 순위는 2009년 기준

자료: 터키통계청, 대외 무역청(www.dtm.gov.tr)

- 독일이 터키의 최대 교역 국가이며, EU 국가와의 교역 비중이 전체 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외무역의 유럽의존도가 높은 편임.
- 터키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류, 섬유류(주로 의류) 등이며, 최근 몇 년간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수출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터키 자동차 내수 시장은 물론 수출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의류의 경우는 중국에 이어 EU 의류 시장 제2위의 공급국으로 현재 중국산 제품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 연료, 기계류, 전기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철강, 플라스틱 제품 등임.

표. 터키의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상품분류	품목	2008 년	2009.1~7 월
1	87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8,327	6,636
2	72	철강	14,946	4,577
3	71	보석 및 귀금속류	5,383	4,569
4	84	보일러, 기계류	10,259	4,525
5	61	의류(편물)	7,827	3,913
6	85	전기기계 및 장비	7,972	3,372
7	73	철강제품	5,742	2,533
8	62	의류(편물제외)	5,327	2,426
9	27	광물성 연료	7,532	1,816
10	39	플라스틱류	3,563	1,682

주: 순위는 2009년 기준

자료: 대외 무역청(www.dtm.gov.tr)

표. 터키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상품 분류	품목	2008 년	2009.1~7 월
1	27	광물성 연료	48,281	16,089
2	84	보일러, 기계류 등	22,539	9,374
3	85	전기기계 및 장비	13,892	6,296
4	72	철강	5,359	5,876
5	8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3,160	4,538
6	39	플라스틱류	9,386	3,597
7	30	의약품	4,361	2,291
8	29	유기화학품	4,421	1,838
9	90	광학제품 및 부품	3,445	1,506
10	48	종이류	2,605	1,189

주: 순위는 2009년 기준

자료: 대외 무역청(www.dtm.gov.tr)

4. 한-터키의 교역 현황

- 터키는 한국의 전 세계 수출대상국 중 2005년 23위, 2006년 25위에 이어 2007년에는 26위(금액 기준)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대 터키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08년 -7.7%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09년 8월에는 2008년 대비 30% 이상 감소를 기록하면서 31위 수출시장으로 순위가 낮아졌음.

- 한국의 대 터키 수출증가율은 2003년 58.8%, 2004년 71.4%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나타냈으나, 2005년 18.1%, 2006년 9.1%로 다소 둔화되었음. 이후 2007년에는 다시 34.6%라는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들어 터키 내수 시장 위축 및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7.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2009년 들어서는 감소폭이 50% 에 달할 정도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음.

- 터키로부터의 수입은 아직 수출에 비해 미미한 편이나 증가율은 2005년 22.5%, 2006년 52.5%에 이어 2007년 44.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음. 2008년에도 역시 28.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이처럼 터키로부터의 수입은 그 규모 면에서는 미미한 편이나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대 터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기자재, 무선통신기기, 전자 부품 및 철강 제품 등 임. 2007년에는 철강 제품, 섬유 기계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대 터키 수출을 이끌었고 2008년에는 선박기자재, 철도차량 부품 등이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 전통적으로 대 터키 주력 수출상품인 섬유의 경우 2005년부터 섬유쿼터가 폐지되어 수출에 다소 영향을 받고 있으나 합성수지 및 스판덱스 등 고급 직물의 경우 여전히 높은 수출을 기록하고 있음.
- 한국이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석유제품, 의류, 수산가공품 등이나 그 규모는 수출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임.

표. 한-터키의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8 월
수출 (증가율)	2,356 (71.4)	2,782 (18.1)	3,036 (9.1)	4,087 (34.6)	3,773 (-7.7)	1,633 (-37.7)
수입 (증가율)	104 (33.2)	127 (22.5)	194 (52.5)	282 (44.9)	362 (28.5)	274 (4.7)
무역수지 (증가율)	2,252 (73.7)	2,655 (17.9)	2,841 (7.0)	3,805 (33.9)	3,411 (-10.4)	1,359 (-42.5)

자료: 한국무역통계

표. 한-터키의 주요 수입품

(단위: 백만 불, %)

순위	품목명	2008		2009.1~8 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377	17.5	232	67.4
2	자동차	410	-39.6	164	-46.1
3	합성수지	310	-2.3	123	-46.7
4	자동차부품	417	44.7	117	-62.7
5	철강판	289	88.3	114	-51.1
6	무선통신기기	195	-55.6	69	-57
7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3	-77.8	49	-5.4
8	플라스틱 제품	67	3.3	40	-16.3
9	컴퓨터	35	-42.5	38	62.5
10	종이제품	18	-23	35	159.4
	총계	3,773	-7.7	1,633	-37.7

주: 품목은 MTI 3단위 분류

자료: 한국무역통계

표. 한-터키의 주요 수입품

(단위: 천 불, %)

순위	품목명	2008		2009.1~8 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원유	0	-	109,030	-
2	자동차부품	19,345	17.6	31,849	115
3	의류	29,913	26.7	15,729	-32.7
4	석유제품	106,438	278,031.40	14,637	-81.5
5	기타비금속광물	15,346	28.1	10,934	25.8
6	기호식품	14,104	-3.4	10,245	5.9
7	무선통신기기	6,254	390.8	5,877	28.2
8	기타정밀화학제품	5,750	32.4	4,248	34.3
9	선재봉강및철근	0	-	3,725	-
10	식물성물질	5,256	2.3	3,553	-6.6
	총계	361,913	28.5	273,944	4.7

주: 품목은 MTI 3단위 분류

자료: 한국무역통계

2 부 : 터키 현지 면담 결과

1. 부르사 대학

- 부르사 대학의 농과대학 학장 Dr. Bahattin CETIN과 터키 농업 전반과 주요 농산물 생산에 관한 면담을 하였음.
- 터키의 주요 생산품으로는 살구, 헤이즐릿, 장미기름 등이 있음. 부르사 지역에서는 올리브 오일, 올리브, 밤 등이 생산이 생산되며 이 지역의 중요한 작물임.
 - 과실류는 사과, 복숭아, 무화과, 배 등 대부분의 과일이 생산되고 있으며 복숭아가 주로 생산이 많이 되나 사과의 생산량은 많지 않음.
 - 채소류는 토마토, 수박, 콩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토마토가 많이 생산됨.
 - 곡물류는 밀, 보리, 해바라기(오일), 쌀, 대두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쌀은 한국에서 소비하는 쌀과는 다름.
 - 축산물로는 닭고기가 중요한 품목임.
- 터키는 기후가 좋기 때문에 식품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상품을 모두 생산이 가능함.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필요하면 터키통계청 (<http://www.tuik.gov.tr>)에 가면 생산 등 대부분의 통계자료를 구할 수 있음.
- 터키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축산 부분에서는 닭고기와 달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절화, 가공과일, 냉동과일 등을 유럽시장에 주로 수출하고 있음.
 - 절화의 경우는 터키 남부의 안탈리아 지역에서 생산되며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음.
 - 터키 내륙 지역에서는 밀, 옥수수, 보리, 쌀, 면화 등을 생산하여 수

출하고 있으며 쌀은 흑해 주변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보리의 생산은 많지 않고 사료용으로 주로 수입을 하고 있음.

○ 한국과 터키 농산물 교역에 대한 의견과 전망이 궁금함.

- 신선과일 중에서는 복숭아, 무화과 등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음. 특히 무화과 중 검은 무화과(black fig)는 부르사에서만 생산이 가능하고 캐나다, 이스라엘 등지로 수출하고 있음. 다양한 종류의 신선 딸기 및 제조 딸기도 수출 가능성이 있음.
- 체리는 알라라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품질 및 가격이 좋아 유럽, 미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음.
- 토마토는 소스 및 페이스트로 수출을 하는데 현재 유럽, 일본, 미국, 캐나다로 수출하고 있음.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좋음.
- 닭고기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의 거리를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터키인들도 다리를 선호함.
- 마늘, 고추도 수출이 가능한데 마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소비하는 마늘과는 종류가 다름. 한국에서 주로 소비하는 마늘은 터키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터키는 작은 마늘을 생산하고 있으나 수출입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의 수출 가능성이 있음.
- 참깨는 생산과 소비가 거의 없으며 주로 사료용으로 수입하고 있음.
- 대두는 사료용으로 95%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데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그러나 GMO 문제로 대두유는 소비하지 않고 있음.
- 감자와 양파도 생산이 많은 품목임.

2. 부르사 도매시장

- 부르사 도매 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매니저와 간단히 면담하고 시장을 견학하였음. 이곳에서는 시장을 hal 이라고 부름.
- 이곳 시장은 청과물 시장이며 부지가 50ha에 달함. 2008년 기준 연간 306,000톤(135백만 달러)의 야채와 과일이 이곳 시장으로 들어와서 전국

으로 분산되어 판매되고 있음. 터키에서 가장 큰 청과물 시장임.

- 청과물의 특성상 계절에 따라서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품목이 다른데 11월 현재는 오렌지, 만다린 등이 남 이즈미르에서 생산되어 출하되고 있음. 여름에는 복숭아, 배가 부르사에서 출하되어 들어옴. 현재 오렌지, 만다린 이외에도 사과, 배, 채소 등이 있음.
 - 단순히 도매시장으로서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업체도 시장에 같이 있음.
 - 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연구실도 있음.
- 도매시장은 경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전국의 소매상들로 분배됨.

3. UIB(Uludag Ihracatci Birlikler)

- UIB는 총리실 산하 청과 수출 협회이며 장관급 기관임.
- 터키 인구의 60~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많이 줄고 있는 추세임. 특히 EU에서는 EU가입을 위하여 농업 인구를 10% 이하로 줄이기를 요구하고 있음.
- 주로 차, 오렌지, 포도, 체리 등을 수출 많이 하고 있음.
- 퀸스와 검은 무화과(black fig)가 품질이 좋으며 특히 검은 무화과는 부르사의 특산물임.
- 감귤류의 수출이 2008-9년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EU와 러시아에 주로 수출을 하고 있음.
- 체리는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가격은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졌음.

- 앞서 말한 검은 무화과(black fig)는 이 지역 특산물이며 paradise fruits 라고도 불림.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잘 자라서 유럽에 수출하기 매우 좋음. 가격은 1kg에 5~7 달러 수준임.
- 사과와 경우에는 터키의 생산이 세계에서 많은 수준이나 수출은 많지 않음.
- 파는 주로 러시아로 수출을 많이 하며 브로콜리는 터키 국내에서도 가격이 비싼 편임.
- 전반적으로 체리가 수출 1위의 품목이며 퀴스도 수출 10위권에 들어가는 품목임.
- 터키는 기후가 좋아서 다양한 품목들이 생산 가능하여 한국에 필요한 물량만큼 수출이 가능하지만 오렌지, 레몬 등의 품목의 검역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부 록 1 : 도매시장 가격

단위 : kg/TL

품목명	최저가	최고가
파인애플	3	6
배	0.8	1.5
마르멜로	0.8	1.5
라임	10	14
강낭콩	2	5
완두콩	1	2.5
고추	1	2
블랙베리	3	13
레몬	1	1.5
호두	3	6
딸기	12	20
망고	4	5
토마토	0.7	1
사과	1	2~3.5
자두	1.5	2.5
맨더린	1	2
개암	2	4
양상추	6	16
자몽	1.5	2.6
당근	0.6	0.8
코코넛	1.5	2
대추	1.5	2.5
시금치	1	1.5
검은 무화과	2.5	6
호박	0.6	0.8
키위	9	11
양배추	0.8	1.3
버섯	1	2
양상추	5	10
파슬리	7	16
옥수수	0.3	0.4
바나나	1.5	3
민트	8	15
석류	1.5	3
비트	0.7	1.3
감자	0.7	1.5
가지	0.4	0.8
파	0.7	1.4
오렌지	1	2
오이	1	2
마늘	1.5	3.5
양파	0.7	1.5
포도	1	2
버찌	2	4

주 : TL은 터키 화폐 단위로 1TL은 우리나라돈 750~800원 수준임.

부 록 2 : 터키 현지 농장 및 시장 (사진생략)

1. 브루사 Hal (청과물 도매 시장)

- 도매시장의 전경.

: 부지가 매우 큼. 터키에서 가장 큰 청과물 시장임. 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연구소, 수출업체 등이 모여 있으며 시설은 깨끗함.

: 본 연구실에서 잔류 농약 검사 등 식품안전성 검사를 진행함. 각 지역에서 온 농산물들을 지역별, 품목별로 분류하여 검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시장 내부

: 다양한 종류의 청과물들을 판매하고 있음.

- 오렌지

: 오렌지 생산이 많은데 출장 갔을 시기는 오렌지가 막 출하되는 시점이라 오렌지의 맛이 최상이 아닌 시기였음.

- 자몽

: 맛은 괜찮으나 외관이 좋아 보이지는 않음..

- 배

: 외형이 고르지 못함.

- 밤

: 우리의 밤과 거의 유사하게 생겼으며 가격이 다른 과실류에 비해 비싼 편임. 이스탄불 시내에서는 군밤을 파는 풍경을 볼 수 있음. 냄새는 고소하고 좋으나 우리의 밤에 비해 단맛이 떨어짐.

- 키위

: 우리가 생산하는 참다래와 비슷한 사이즈임. 모양은 국산이나 뉴질랜드 산에 비하여 떨어짐.

- 석류

: 성인 주먹보다 훨씬 큰 것부터 주먹만 한 것까지 다양함. 외관은 안좋은 편이나 맛은 매우 좋음. 석류원액이 수입되어서 들어온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음.

- 감

: 우리의 단감보다 큰 사이즈이고 맛은 비슷하나 풍미가 떨어짐.

- 마르멜로(퀸스)

: 향이 풍부하고 좋으며 맛있으나 식감이 딱딱한 스폰지를 씹는 것 같음.

- 사과

: 우리의 사과보다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음. 풍미가 떨어지는 편임.

- 마늘(중국 수입)

: 우리가 주로 소비하는 크기의 마늘. 터키에서는 이런 종류의 마늘은 수입하고 있음.

2. KIPA(대형마트)

- 매우 큰 규모의 마트이며 다양한 종류의 품목들이 진열되어 있음. 관리원들의 제지로 인하여 많은 사진을 담을 수는 없었음.

- 오렌지

: 오렌지는 시장에서 파는 상품과 마트에서 파는 상품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없었음.

- 석류

: 시장 상품들에 비해서 마트의 상품이 외관이 더 좋음.

- 감귤

: 망에 담아서 kg단위로 판매하고 있음.

- 사과

: kg 단위로 판매하고 있으며 도매 시장의 상품보다 품질이 좋음.

- 토마토

: 우리의 토마토에 비해 모양과 색이 좋음.

- 고추

: 우리의 것에 비해 길이가 길고 크기가 큼. 좌측에 있는 것은 피망과 유사하고 우측에 있는 것은 우리의 고추와 비슷함.

: 붉은 고추는 우리 것에 비해 매우 큼.

: 음식할 때 많이 사용되며 가격이 비싼 편임

: 고춧가루도 가격이 비싼 편임.

3. 농장(부르사 지역)

: 우리가 견학한 농장은 3ha 규모의 농장이었으며 1ha당 한화로 약 1천만원의 소득을 얻는다고 하였음.

- 농장 전경

: 사람키의 2~3배 정도 되는 과수가 줄줄이 들어서 있음.

- 배 나무

- 냉장창고

: 창고에는 제철이 아닌 다양한 과일들이 보관되어 있었음.

- 자두

: 우리의 자두에 비해 크기가 두배 정도이며 럭비공 모양으로 생겼음.
껍질이 두껍우며 당도가 떨어지고 향이 거의 없음.

- 복숭아

: 색깔이 좋고 품질이 좋아 보였으나 시식해보지는 못했음.

- 검은 무화과

: 부르사의 특산품이라고 해서 기대를 가졌으나 과육이 부드러움기는 하나
특별히 더 맛있거나 하지는 않았음. 건강에 좋다고 함.

- 포도

: 시장에서 본 포도보다 알이 굵고 품질이 더 좋아 보였음.

- 상추

: 농가 앞의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음.

- 농가

: 국토가 넓어 농지도 넓음. 번농기가 아니라 한가로운 분위기였음.

4. 소매시장

: 재래 시장형태로 다양한 상품들을 팔고 있었음. 마트에 비해서 진열상
태가 더 좋았음.

5. 이스탄불 Hal

: 이스탄불의 청과물 시장. 부르사에 비하여 규모가 작음. (이후에는 앞에서 나열한 품목은 생략함.)

- 시금치

: 우리의 것과 유사함.

- 파

: 전반적으로 우리의 파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잎이 우리의 것은 둥근 것에 비해 납작하게 생겼음

- 양송이

: 우리의 것과 비슷하게 생겼으며 품질도 좋아 보임.

- 소매상인

: 소매상인이나 음식점자들이 직접 도매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해 감.

6. 향신료 시장

- 고추장

: 터키에도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고추장을 판매하고 있었음.

- 고춧가루

: 다양한 형태의 고춧가루를 진열하고 팔고 있음.